

차선근, 『현대종교학과 대순사상: 비교연구 방법과 적용』에 대한 서평

- 책 한 권에 담겨있는 종교학의 현재와 미래 -

이종우*

- I. 서평을 열며
- II. 꼼꼼함과 치밀함에 바탕을 둔 친절함
- III. 내재되어있는 쟁점들: 비교종교학과 대순사상의 현실
- IV. 서평을 맺으며: 책은 빛나지만, 종교학은 너무 어둡다.

I. 서평을 열며

필자가 차선근의 저서, 『현대종교학과 대순사상: 비교연구 방법과 적용』의 서평을 의뢰받았을 때 솔직히 매우 두려웠다. 서평을 처음 써 본다는 것도 이유였지만, 더 큰 이유는 책의 소재들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 책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인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 1938~2017)에게 일종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있다.

* 상지대학교 교수, E-mail: jwleers@sangji.ac.kr

필자는 대학원 수업시간에 조너선 스미스의 저작을 처음 접했다. 조너선 스미스의 엄청난 양의, 그렇지만 필자에게는 낯선 소재를 다룬 자료 연구와 특유의 은유적 표현 때문에 필자는 영어책을 번역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담당 교수에게 선을 넘는, 그리고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의 질책을 받은 것은 덤이었다. 이후 필자에게 조너선 스미스는 무엇인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고, 시간을 두고 조너선 스미스의 저서와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읽는 것으로 “아주 조금”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너선 스미스에게 느끼는 것이 어려움이었다면, 필자가 “대순사상(大巡思想)”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낯설음이었다. 필자가 다루는 주된 연구 소재는 불교다. 그리고 천주교, 무속에 관한 약간의 연구논문이 있을 뿐이다. 필자에게 신종교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신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지공사, 참부모, 열두지파 등 신종교의 교리 속에 나오는 각종 용어들은 필자에게 매우 낯설었다. 어려운 조너선 스미스의 이론과 낯설은 대순사상을 다룬 서적에 대한 서평이니 필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어렵고 낯설다는 이유로 미루어두었던 공부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킨다는 생각으로 서평을 작성해보기로 결심했다. 참고로 이러한 “어려움”과 “낯설음”은 필자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교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학과 신종교에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수 있다.

II. 꼼꼼함과 치밀함에 바탕을 둔 친절함

이번 서평은 필자가 이러한 두려움과 낯설음을 조금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책의 주된 특징인 “친절함”은 필자가 두려

움을 조금 털어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반면 필자는 조금 불친절하게도 이 책의 내용 소개를 대폭 생략할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현대종교학 이론의 흐름을 소개하고, 이 가운데 흔히 “비교종교학”으로 일컬어지는 종교들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집중 조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순사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향점은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데, 그것은 대순사상의 연구에 현대종교학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방법인 비교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차선근은 “성찰”을 강조하고, “종교”나 “종교현상”이라는 말에 모든 종교와 종교현상을 집어넣는 대신 개별 종교들을 살필 것을 제안했다(pp.70-71). 특히 차선근은 조너선 스미스와 강돈구의 연구 이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비교 이론들을 대순진리회와 다른 종교들 사이의 비교에 적용하고, 이것을 통해 대순진리회라는 종단의 여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서평이라면 대상이 되는 저서의 내용 전반을 소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분을 대폭 생략할 것이다. 그 이유는 차선근 교수가 「이 책의 갈라잡이」라는 제목의 장을 편성해서 매우 친절하게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리뷰했기 때문이다. 책의 전반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구매하거나 대출받을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 책이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 도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고, 그 덕분에 몇몇 언론에서 이 책의 전반적 내용을 소개했으므로, 필자는 본 서평에서 굳이 내용 소개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진대학교 공식 블로그에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으니,¹⁾ 책의 구매가 부담스럽거나 도서관과 서점에 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검색해보길 바란다.

이 책의 친절함은 내용에도 담겨있다. 그리고 그 친절함은 이 책의

1) 「대순종학과 차선근 교수 저서,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 도서 선정」, 대진대학교 공식블로그.

학술적 가치를 높여주었다. 차선근은 비교종교학에 관한 이론을 소개했는데, 그 방식은 조너선 스미스를 주요 축으로 삼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파생 이론이나 조너선 스미스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의 서구 종교학 이론가들의 주장들도 꼼꼼하게 소개했다. 이 책의 제1장을 읽으면 적어도 조너선 스미스파 비교종교학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접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 관한 친절한 소개는 제10장에서 드러난다. 차선근은 제1장에서 비교종교학과 종교 개념 폐기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뒤 제2장에서 제8장까지 대순사상을 『정역(正易)』, 수운 최제우, 지상선경, 단군사상, 신선사상, 중국민간도교, 무속과 비교했다. 그리고 제9장에서 증산계 종교를 일괄기술하는 과정에서 대순사상이 다른 증산계 종교와 다른 점을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했음을 지적한 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제10장에서 대순사상의 특징을 소개했다.

이러한 친절함의 뒤에는 치밀함이 담겨있다. 차선근의 책은 차선근이 지금까지 서술해왔던 연구논문들을 수정한 뒤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출판한 결과물이다. 보통 어떤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논문들을 모아서 출간한 책은 처음부터 출판을 염두에 두고 집필된 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차선근의 책은 비교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순사상을 다른 종교와 비교한 뒤 ‘그러므로 대순사상은 ○○○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차선근의 연구논문 자체가 대순사상이라는 연구대상을 비교라는 방식으로 연구해 온 노정의 결과물이고, 이로 인해 논문을 모아서 출판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매우 치밀하다.

굳이 “옥의 티”를 지적하자면 책 전반, 특히 제2장에서 제9장의 각 서론 부분에서 조너선 스미스와 강돈구의 특정한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1장에서 친절하게 다루었으니 이후에 굳이 반복될 이유가 없었다는 의미다.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옥의 티”는 제2장, 3장, 7장, 8장의 제목이다. 차선근은 비교 대상을 앞에, 주요 연구대상을 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열거한 장의 제목을 지었다. 제2장인 「정역사상과 대순사상 비교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5장은 「대순사상과 단군사상 비교연구」라고 제목을 지었다. 필자는 제5장의 작제 방식이 제2장의 작제 방식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차선근은 “엘리아데는 종교학을 향한 ‘고유한 접근(*sui generis*)’을 강조했고, 조너선 스미스는 이에 반대하면서 종교학자의 자의식의 중요성, 비교 대상이 아닌 연구대상 자체의 사례를 종교현상 연구의 소개로 삼을 것, 선택한 1차 자료의 해석 역사와 전통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사례의 응용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p.35)”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차선근의 주요 연구 대상을 먼저 언급하고, 비교의 대상을 나중에 언급하는 방식으로 제목을 짓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2, 3, 7, 8장의 제목 작성 방식은 대순사상 연구라는 차선근의 의도를 희석시킬 수 있다. 향후 개정판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제목을 수정 하길 기원한다.

Ⅲ. 내재되어있는 쟁점들 : 비교종교학과 대순사상의 현실

앞에서 필자는 조너선 스미스에게는 어려움을, 대순사상에게는 낯설음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감정을 지렛대로 삼아서 조금 더 깊은 논의로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조너선 스미스에게 느끼는 “어려움”과 대순사상에서 느껴지는 “낯설음”은 조금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종교학을 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내재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비교종교학과 신종교 연구는 대중적 요구가 적은 분야라는 의미다. 나아가서 종교학 자체 역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학문 분야다. 꼼꼼함과 치밀함을 바탕으로 한 친절한 차선근의 책을 읽으면서 필자는 오히려 비교종교학, 신종교연구, 그리고 종교학의 현실을 떠올렸다.

1. “비교”의 한계와 그것의 극복

종교학에서 “비교”는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고, 학계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연구방법이다. 그런데 “비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고의 과정이다. 인간의 오감은 신경을 통해 다른 자극이 전달되고, 인간의 뇌에서 이것을 비교하고 판독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시신경에 전달되는 자극의 차이를 비교해서 색과 형태를 구분하고, 음파의 차이를 비교해서 소리를 구분하고, 공기 입자의 다름을 비교하여 향을 구분하고, 혀에 느껴지는 자극의 차이를 비교하여 맛을 구분하고, 피부에서 다른 부분과 다른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비교하여 감촉을 느낀다.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학문 분야는 “비교○○학”이라는 세부 분야를 가지고 있다. “비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술지만 보면 법학(『비교사법』, 『비교형사법연구』, 『비교법연구』), 경제(『비교경제연구』), 민속학(『비교민속학』), 문학(『비교문학』, 『동서비교문학저널』), 지역학(『비교한국학』, 『비교중국연구』, 『비교일본학』)을 비롯한 많은 학계에서 “비교”라는 단어를 포함한 이름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라는 방법이 상당수의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방법임을 의미한다.

종교학에서 “비교”라는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학만이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수도 있다. 차선근 역시 강돈구의 포석정에 관한 연구를 사례로 들어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pp.63-64). 사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개별교학, 어학 등 인접 학문에서도 종교를 연구하는데, 하필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독

립되어 있으니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종교학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숙명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연구 소재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 역시도 신문방송학이 존재하지만, 언론사(言論史), 언론철학, 미디어인류학, 언론심리학 등 다양한 인접학문에 분과가 있다. 그러나 “신문방송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그 수요가 종교학보다 훨씬 많고, 심지어는 “언론대학원”이라는 이름의 특수대학원도 존재한다.

거기에 종교학은 인접학문의 연구방법을 차용하는 학문분야인데 종교학 특유의 발언을 해야 하니 ‘종교학을 했으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 다 잘 알 것이다.’라는 오해를 활용(?)하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고 많은 학문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인 비교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심리학 정도를 제외하면 인문사회과학 중 대부분이 문헌연구 외에 독특한 연구 방법이 없음을 감안하면 연구방법론이 빈약한 것은 모든 학문분야가 처해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오히려 두 가지 모두가 종교학이 비교에 천착하는 이유의 답일 수도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과정이고, 상당수의 학계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지만 “비교”라는 방법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이것은 조너선 스미스가 주장했고, 차선근이 이 책에서 매끄럽게 시도했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라는 테제보다 앞에 존재하는 벽이며,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우선 “비교”는 매우 어렵다.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주체와 비교의 대상을 모두를 해박하게 알아야 한다. 한 가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데,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두 가지를 모두 연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차선근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은 비교의 초점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의 커다란 덩어리 사이의 비교가 아닌 하늘과 수행관(증산과 수운), 미래관(개벽과 지상천경), 서사구조와 모티프(대순사상과 단군

사상), 신선, 해원개념(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 증산과 무속의 해원사상) 등 세밀한 비교 기준을 정해서 두 가지 종교를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차선근은 매우 주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도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차선근의 “위라벨”이 심각하게 붕괴된 것은 비교라는 작업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비교”는 그 목적 혹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종교 간의 비교를 시도하는 학자들 중 “비교 자체”에 매몰되어서 ‘비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종교를 비교해놓고 결론에 ‘공통점은 ○○이고, 차이점은 ●●이다.’라고 서술하고 끝내는 연구도 종종 발견된다. “종교 간의 비교”의 시작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이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이것을 통해 기독교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 사이의 단순 비교는 이러한 음모가 여전히 잔존해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적어도 한국종교학에서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중요하다.’는 조너선 스미스의 주장에만 주목하고, 그것을 실제 종교간의 비교에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차선근의 경우 비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너선 스미스의 주장을 실제로 적용했다. 차선근의 연구에서 비교의 목적은 “기존에 증산계 종교 또는 신종교로 획일화되면서 왜곡되었던 대순진리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연구 목적이 분명하다보니 비교할 범위도 쉽게 축소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차선근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해원상생을 종지로 내세워서 핵심 교리로 삼는 종교는 대순진리회가 유일하다(pp.282-283).’는 논지로 예상된다. 이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대순사상을 다른 한국신종교 사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차선근의 이러한 시도는 비교를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싶어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종교학에서 비교는 “비교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구방식이다. 그런데 종종 종교학에서의 비교는 부정적으로 취급된다. 이 책에서 차선근도 학술대회에서 한 발표자가 “비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막스 뮐러가 활동했던 1870년에 머물러있고, 그 이후의 비교연구 방법론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평가했다(p.7). 이 에피소드는 종교학에서 “비교”가 가진 위상을 그대로 방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 역시 앞에서 언급한 비교의 한계 때문에 되도록 비교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교는 종교학 안에서 엄연히 통용되는 연구방법이므로 향후 더 좋은 연구가 나와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길 기원한다. 그리고 이 책은 비교연구의 좋은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내부인의 시선과 외부인의 시선을 오가는 곡예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에서 도도히 흐르는 차선근의 연구 목적은 다른 증산계 종교나 신종교와 다른 대순진리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외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하는 특정종교 연구와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특정종교 연구 사이의 문제다.

이 문제는 종교학의 오랜 쟁점 중 하나였다.²⁾ 특히 종교학의 정체성과 인접학문과의 차별성, 그리고 종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 등으로 이어진다. 각 종교는 자기 종교의 교리와 신의 위대함에 관하여 연구하는 개별 교학이 불교학, 신학, 대순종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종교학은 기독교

2) Kim Knott, “Insider/outsider perspectives,”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Routledge, 2009) 참조.

교 신학으로부터의 독립에서 시작된 근대학문이고, 특정한 종교나 신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학문이 아니다.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종교학을 공부한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 결과는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 개별 교학의 연구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주목하거나 획득할 수 없는 자료를 연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차선근 역시 이러한 평가들 중 어떤 것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차선근은 대순진리회 신자를 일컫는 “수도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종교학과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중단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대진대학교의 대순진리회 교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순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선근의 이러한 이력은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정체성과 종교학자라는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내부인-외부인 논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차선근은 이 책에서 이러한 논란의 가능성을 객관적 연구로 극복했다. 특히 차선근은 수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십분 활용하여 대순진리회의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종교들의 자료들과 비교했다. 내부자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외부자의 객관성을 유지했고, 그 결과가 이 책에 담겨있다.

한국에는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대학을 설립하고 개별교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과를 설치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개별교학만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한국에서 개별교학과 종교학이 공존하거나 개별교학 학과에서 종교학 연구자를 교원으로 초빙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책은 내부자의 신앙과 외부자의 객관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별교학 안에서 종교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할 필요성도 보여주고 있다.

3. 여전히 남은 의문: 종교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지면을 빌어 필자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 종교학은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인가? 아니면 종교를 통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일단 종교학은 인문학이다. 인문학이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분야고,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 분야라면, 종교학은 인문학이 맞다. 그런데 종교학이 “종교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지, 아니면 종교 연구를 통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여부에 따라 종교학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

솔직히 필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예상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둘 다”다. 일부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필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 대신, ‘그건 당신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욕박지를 수도 있다. 그런데 필자의 질문은 핀잔이나 욕박지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담고 있다. 바로 종교학의 정체성과 현실이다.

종교학자 중 종교학을 “종교를 연구하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가장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는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는 인접 학문인 개별교학과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별교학의 입장에서 이 전제는 신의 위대함과 자기 종교의 심오함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종교학 자체의 미래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³⁾ 이것은 종교학이 종교를 연구하는 인문학이라면, 종교학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한신대학

3)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 (201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conn_path=12, 2024. 6. 6. 검색).

교에서 종교문화학과의 폐과를 결정한 것이나, 2003년보다 2022년에 입학정원 감소율에서 종교학이 인문학 1위, 전체 학과 중 5위를 차지한 것⁴⁾은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다.

종교학이 “종교를 통해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이라는 입장은 이러한 위기에 몇몇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 추세의 대표적인 세부 분과가 바로 “인지종교학”이다. 인지종교학은 종교를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획득하고 DNA 안에 내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의 연구가 인간의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특정 교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자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유행하는 MBTI, 특정 정치인이나 아이들에게 열광하는 행위, 소소한 루틴(routine)과 징크스 등 다양한 분야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이 책의 핵심어 중 하나인 강돈구 역시 “졸업식에서 졸업한 사람에게 달걀이나 밀가루를 뒤집어씌우고 교복이나 교과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례의 특징과 연결”해서 설명한 적이 있다. 아울러 최근에 대세가 된 “융복합”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분과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손댈 엄두가 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지종교학은 각종 한계로 인해 종교학계에서 한 분과를 제대로 형상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종교학의 상당수 논문은 “종교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획득한 것”이라는 전제가 결론에서 반복되고, 세상의 모든 일을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천편일률적이고 뻔하다. 또한 과도한 환원주의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책에서의 논의로 돌아가보자. 종교학이 “종교를 연구하는 인문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4) 박병수, 「대화가 “이주호식(式), ‘무전공 입학’ ‘2009년 악몽’ 재현” … ‘연합·연계·자율전공2’ 접목필요」, 《유스타인》 2024. 4. 1.

없는 것이 바로 “종교”의 정의인데, 이 책에서 차선근은 “종교” 개념에 관한 다양한 논의도 소개했다. 차선근은 이 책에서 릴리지온(종교) 자료 문제(pp.36-44)를 언급하면서 릴리저스(the religious)의 문제(p.44)를 언급했다. 종교 개념의 해체에 대한 윌프레드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1916~2000)와 이후의 논의들도 소개했다. 그리고 차선근의 선택은 ‘종교 개념을 완전히 폐기할 순 없고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조너선 스미스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 논의는 “신종교” 개념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차선근은 “신종교”라는 인위적 분류로 인해 한국의 신종교가 성급하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pp.395-400),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의 여타 신종교와 다른, 대순사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드러냈다. 앞에서 언급한 “종교 정의 폐기 여부에 관한 논쟁”을 신종교에 그대로 적용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순사상의 특징을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차선근에게 향후 “대순진리회”라는 명칭에 관한 연구도 제안한다. 불교, 기독교, 유교, 서학 등이 타자나 연구자의 분류라면, “대순진리회”라는 명칭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흥미로운 논의를 만들 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증산을 신으로 모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소위 “증산계 신종교”들이 다수 존재함을 감안하면, 이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표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와 다른 증산계 신종교들이 자신들의 명칭을 짓는 과정이나 “대순”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비교를 통한 대순진리회의 정체성 연구”라는 차선근의 연구 방향과 일치할 것이다.

이 제안을 다시 앞의 논의와 연결해보자. “대순진리회”라는 명칭에 관한 연구가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대순진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한국 사회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종교학과 종교가 처한 현실이다.

한국 최대 구석기 유적지가 외국계 놀이공원 건설을 위해 해체되어 그 일부가 전시장의 전시물이 되고, 수백년 된 왕릉보다 아파트 건설이 중요한 세상에서 종교학이 처한 현실은 이보다 더 어두울 수도 있다.

IV. 서평을 맺으며 : 책은 빛나지만, 종교학은 너무 어둡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대순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친절하게 비교종교학과 “종교”라는 용어의 의미를 소개했고, 대순진리회의 대순사상에 관한 자료들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역시 치밀하게 다른 종교들의 사상과 비교해서 대순사상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번 논평은 필자에게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비교종교학과 신종교에 관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평의 마무리는 종교학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말하기 어렵거나, 누군가는 다른 연구자들보다 뛰어난 오만함 속에 “등 따습고 배부른” 위치에 있어서 모른 척해왔거나, 누군가는 자기 연구에 매몰되어서 관심조차 없거나, 누군가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만큼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종교학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이 책의 서평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정전된 상황에서 노트북 한 대만 켜져있는 상황”을 떠올렸다. 종교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마치 정전된 상황처럼 어두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 속에서 이 책은 필자에게 “켜져있는 노트북”과 같았다. 온 세상이 어두운데 노트북 한 대면 켜져 있으면, 노트북으로 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주변도 조금은 밝아져서 편리하며, 심지어 노트북으로 하는 작업이 재미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노트북을 뒤로 하고 잠

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시 어두운 집안을 헤매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배터리 전력이 다하면 그 노트북도 꺼질 수밖에 없다.

차선근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있다. 노트북에 새 배터리를 갈아끼우는 것, 내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를 들여놓고 가동하는 것, 세상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다. 새 배터리를 갈아끼우면 다시 노트북은 작동하겠지만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 내 집에 발전기를 들여놓고 가동하는 것은 내 집은 밝힐 수 있지만 집을 제외한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것이다. 세상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도록 노력해서 세상이 밝아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긴 시간과 노력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밝히지도 못하고 노트북마저 꺼질 수 있다. 향후 차선근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차선근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필자 역시 같은 선택지가 놓여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지속될 차선근의 연구를 응원한다.